

기념비의 정치와 '박정희사회'

2024.7.23 대구사회연구소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서론

- 1987-88년 지방사회연구회 네트워크(1992 대사연 출범)
- 1990 이수인교수의 국회의원 선거
- 2021-22 진실화해위원회 대구 위령제

- 2024.5(총선이후) '청라언덕' 답사 (이여성-이쾌대; 이상화-이상백; 정치창 교수칼럼)
- 2024.6 대구사회연구소의 요청: 박정희동상에 관하여

- 2024년 대구와 경북에서 진행되는 박정희동상건립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정희동상이 건립되는 경우, 그 미래의 운명은 어떠한 것인가?

- 기념비 연구의 맥락에서의 성찰
- *1990년대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을 상기함

차례

- 1. 문제의 소재: 박정희 동상은 어디에 있는가?
- 2. 기념비 연구의 궤적
 - 1) 소안도 항일운동기념비
 - 2) 탈냉전과 레닌동상, 그리고 소련군 기념비의 운명
 - 3) 소록도 갯생원 수호원장 동상의 비극
- 3. 이행기 정의와 권력의 우상 파괴(명예박탈과 破像)
 - 1) 이승만 동상
 - 2) 장개석 동상
 - 3) 진실 부인과 전두환 가상사죄상
- 4. 민주주의의 퇴행과 '박정희 사회'
 - 1) 1990년대 민주화와 박정희 신드롬
 - (자유로부터의 도피, 권위주의 향수, 우리 안의 파시즘)
 - 2) 2024년 박정희 향수와 동상건설논쟁: 대구프로젝트와 경북프로젝트(박근혜 탄핵 이후, 제2보수화의 물결)
 - 3) 대구 안의 정의(광주/김대중 콤플렉스, 내부 이방인)
- 5. 전망: '달빛동맹'의 빛과 그림자
 - 대구정체성논쟁
 -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적 연대 강화하기

근원적 문제: 박정희 동상은 어디에 있는가?

- 대구와 경북에서 박정희 동상 (해체가 아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주체와 맥락
- 박정희 동상건립은 지방정부의 권력의지인가, 아니면 추모공동체의 집합 표상인가?
- 박정희 추모공동체의 존재와 강도: 정치적 욕망, 좌절된 욕망?
- <박정희 사회>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주최 측에서 제시해줌.

- 대구의 정체성에 관한 고뇌(내적 이방인화: 합리적 가치가 소수가 된 사회)를 이해하고, 정치지형과 집합적 의식의 추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대구시(지방정부)의 정책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분석
- 선행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전망을 이끌어내야 함

박정희동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론적 맥락)

- 박정희 집권기간의 기념비 정치: 자기 우상화는 절제되었음
- 1990년대 민주화 국면에서의 박정희 신드롬
- <우리 안의 파시즘, 2000> 논쟁: 반공규율권력의 일상화, 운동권의 망탈리테
- 2024년 박정희동상문제: 경북 연고지에 3개의 박정희 동상이 이미 있는 상황
- 대구시장의 제안: 광주에서의 김대중 동상 및 기념상황을 준거로 거론(콤플렉스)
- 경북지사의 제안
- 이행기 정의에서 보는 박정희동상(기념의 퇴행)
- 프롬의 고전적 명제: 권위주의에 대한 자발적 복종-자유로부터의 도피
- 짐멜의 이방인론: 내적 이방인
- 보다 나은 이론적 설명은 없는가?

이방인을 넘어

- "The Stranger" is an essay by Georg Simmel, originally written as an excursus to a chapter dealing with the sociology of space in his book *Soziologie*. In this essay, Simmel introduced the notion of "the stranger" as a unique sociological category. He differentiates the stranger both from the "outsider" who has no specific relation to a group and from the "wanderer" who comes today and leaves tomorrow. **The stranger, he says, comes today and stays tomorrow.** The stranger is a member of the group in which **he lives and participates and yet remains distant from other – "native"** – members of the group. In comparison to other forms of social distance and difference (such as class, gender, and even ethnicity) the distance of the stranger has to do with his "origins". The stranger is perceived as extraneous to the group and even though he is in constant relation to other group members; his "distance" is more emphasized than his "nearness". As one subsequent interpreter of the concept put it, the stranger is perceived as being in the group but not of the group.
- In the excursus, Simmel briefly touches upon the consequences of occupying such a unique position for the stranger as well as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presence of the stranger on other group members. Most notably, Simmel suggests that because of their peculiar positions in the group, strangers often carry out special tasks that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 are either incapable or unwilling to carry out. For example, especially in pre-modern societies, most strangers were involved in trade activities. Also, because of their distance from local factions, they might also be employed as arbitrators and even judges.
- The concept of the stranger has found relatively wide usage in the subsequent sociological literature and it is utilized by many sociologists ranging from Robert Park to Zygmunt Bauman. Like most widely used sociological concepts, however,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regarding its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 *니체: 실재란 영원불변의 허상적 초월자에 대립하는 사건과 생성의 세계(삶)이다. : *안일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허상을 만들고 이 허상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는 우매함.
- 내부 거주자이면서 다른 다수의 내부자들이 복고적 비합리적 가치에 함몰될 때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방인처럼 된 사람들

기념비와 인물상 연구방법론

- Monument : 기념의 3차원(記念, 祈念, 紀念)
- 기념비의 시공간: 건립의 시간성과 장소성, 기념비 자체의 물질성, 건립주체와 소비주체의 관계
- 건립주체: 권력의 기념비와 집합표상으로서의 기념비
 - 1) 현실권력이 직접 자기 재현하는 기념비
 - 2) 기념공동체가 재현하는 기념비
- 기념비의 유형(사건, 인물): 사건 기념비와 인물 기념비
- 인물상(추상적 인물과 구체적 인물: 전신상, 흉상, 두상, 군상)
- 문화예술적 텍스트로서의 동상
- 기념비에 대한 훼손(Vandalism), 이전과 해체

기념비 연구의 궤적

- 1992년 소안도 항일운동기념비와의 만남(연구주제로서의 집합표상)
- 1990년대 탈사회주의와 레닌동상: 핵심적 상징공간론: 타시켄트 독립광장의 사례
- 북한과 만주지역의 해방탑과 우의탑
- 베를린과 동유럽에서의 소련군 기념비(탈냉전과 vandalism)
- '당신들의 천국'과 소록도의 기념비들(원장 기념비와 수호원장 동상/일본 황태후 어가비)

- 한국에서의 4월혁명과 이승만 동상의 운명
- 타이완에서의 이행기정의와 장개석 동상

소안도 항일운동기념탑과의 조우



- 1990년 건립
- 1992년 답사
- 집합적 기억의 재현과 그 경계
- 억압된 기억과 침묵의 문제
- 민주화의 진전과 지역 정체성, 기념산업의 발전

타시켄트 독립광장(1995/98) 핵심적 상징공간: 레닌동상의 변형



평양 해방탑(1947)과 우의탑(1959,이쾌대) 의 재발견



창법적 폭력과 소련군기념비(하얼빈, 베를린)



탈냉전과 동구의 소련군기념비 조롱과 철거(탈린, 소피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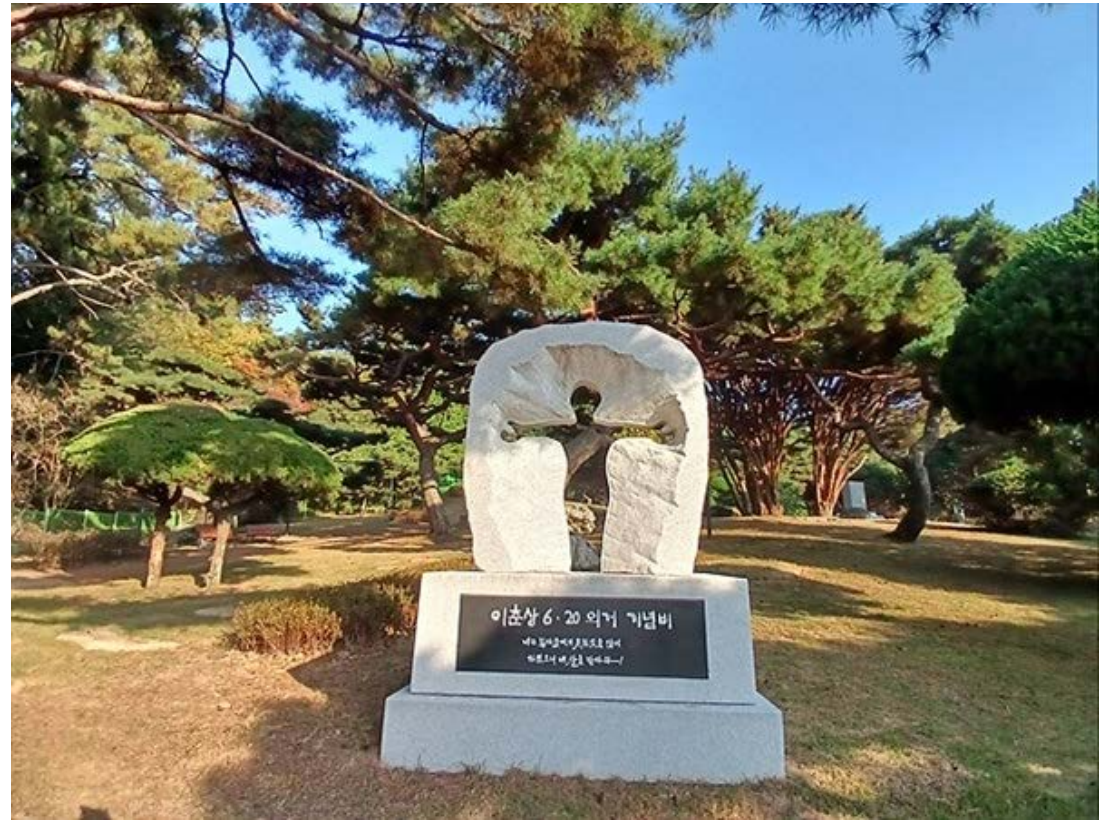
기념비에 대한 비판적 행위들

- 반달리즘(Vandalism)이란 [문화재](#), 문화적 예술품, 종교 시설, 넓게 보면 타인의 재산 등을 파괴, 훼손하려 하거나 낙서로 더럽히는 활동, '훼손 행위(毀損行爲)'라고도 한다.
- 탈냉전과 소련군기념비 훼손(탈린 청동군인논쟁, 소피아 소련군기념비 등, 1994년 독일에서 러시아 철수 당시의 협정)
- 기념비에 대한 비판과 이전
- 이행기 권력형 기념비(동상)의 철거
- 기념비 개조를 통한 상징교체(머리교체, 몸통교체)

일본 나요양소 어가비(소록도 경천애인비)



소록도 갯생원 수호원장 동상의 운명 (1942.6 이춘상사건-성주와 대구)



4월혁명과 이승만동상



- 이승만 정권 중 세워진 이 동상은
이 시초였기에 높이 81척 (25m)으로 맞춘 것이라고 한다.
- 이 동상은 4.19에 의해 철거된 후 분사되어
동탑시립고마해관보그유한상해관위다동차
은골순대년샤옴다저남을4.19내에 끌려
이려이셔대현도탑대어법후저던대학명여
분사동려에이다공교데사분사차거세후#원그
한초도리위학이동처상도시각4.19철이
대위다당철이
대위다당철이

이승만 동상의 운명



- 머리만 남은 동상은 남산에 건립됐던 대형 동상으로 1960년 8월19일 철거됐다.
- 상반신만 남은 동상은 1956년 서울 탑골 공원에 세워졌다가 1960년 4월2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 졌다. 당시 '사상계' 6월호는 "(탑골공원에 세워져 있던) 동상이 새끼로 묶인 채 몇 시간 동안 시민의 박수를 받으며 거리에서 끌려 다녔다"고 전했다.
- 1970년에 발행된 한 잡지에 따르면 한 고철상인이 용산 철공소에 넘긴 동상 일부를 자유당 시절 대한노총 최고위원을 지낸 김주홍 씨가 사들였다. 그러다 김씨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서 이사를 온 현재 집주인이 이를 그대로 둔 채 지금에 이른 것.

인하대 이승만동상의 경우



- 1979년 건립
- 1982년 철거시도
- 1984년 철거
- 2014년 파주 자재창고 보관

타이완에서의 장개석동상 논란

- 타이완의 이행기 정의
- 2.28사건과 백색테러
- 장개석과 장경국 집권기 장개석 동상의 일상화(중정기념관)
- 타이완의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 2000 첸수이벤 민진당정부에서 장개석 동상철거추진
- 2008 마잉주 국민당정부에서 무산
- 2018 민진당 정부에서 타이완 진실화해위 출범
- 전국에 있는 장제스 동상 934개를 철거하기로 결정. 국민당 등의 반대 속에 논란이 커지며 철거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165개만 철거
- 2024년 현재 769개의 동상이 남아있음.

장개석 동상의 희화화 2024.6.4 (타이완 건국고등학교 졸업식)



가상적 사죄(거창추모공원, 전두환사죄상)



박정희 논란의 원천: 집권 18년(功過)평가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1961.5-63.10)	3공화국 민정(1963.10-72.10)	4공화국 독재정(1972.10-79.10)
정치	쿠데타와 법질서 정비 민정이양 약속위반 중앙정보부 및 민주공화당 창당	자유선거(민주공화당) 근대화(증산,수출,건설) 3선개헌	10월유신(유신공화당) 선거폐지(민주헌정중단) 총력안보 중앙정보부+보안사(정적제거)
외교	미국의 신뢰얻기(황태성사건)	베트남전쟁 참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7.4공동성명	남북대화를 내건 통제미국인 권정책과 충돌
경제	부정축재처리 경제개발계획의 체계화	수출지향 산업화 지역간 불균등발전 정경유착	중공업화를 통한 성장 불균등발전심화
사회	기본권 탄압(서산개척단) 전쟁유족회 탄압(대구)	학생운동 탄압 3선개헌반대 탄압 간첩조작(동백림사건)	새마을운동(동원정책) 긴급조치와 기본권탄압 형제복지원 간첩조작(인혁당,남북어부)

대구(경북) 대선 추이(%)

연도	63 경북	67 경북	71 경북	87 대구	92 대구	97 대구	02 대구	07 대구	12 대구	17 대구	22 대구
여당	46	64	76	71	59	12.5:김대중	19	69	80	22	75
야당	45	26	23	24:김영삼 2:김대중	19:정주영 12:박찬종 8:김대중	73 13:이인제	78	18:이회창 6:정동영	20	45:홍준표 15:안철수 13:유승민	22

박정희신드롬

:1990년대 민주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반작용

- 점진적 민주화(1993/1997 대선)와 IMF사태: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
- 반작용으로서의 보수주의의 구조화 (반DJ정서의 확산)
- *우리 안의 파시즘 논쟁(반공주의의 규율권력화=대중독재론과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집단의 심리구조: 저항하면서 닳아간다는 명제)
- *연고주의와 자발적 복종의 심리구조
- 제1차 보수화의 토대(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 2013 서중석교수의 예측(경고): 박근혜정부는 박정희향수의 시험대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서울 상암동)



- 1997 김대중후보의 약속
- 2001년 건립 시작(국고 지원과 서울시 부지제공: 국고지원 문제로 계속 논쟁)
- 2012년 준공, 기념관 개관(박근혜 참석)
- 2019년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
- 도서관과 기념관 사이의 괴리

박정희동상: 새마을운동기념관(포항 기계, 2009)과 구미 생가(2011/21)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 동상. 한겨레 자료사진



경주보문단지 관광역사공원

-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 2025년 관광단지 지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원 재조성 사업에 착수.
-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박정희 동상 건립.
- 2023.11 동상 8개와 대형 조형물 조성
- 2024.5.16 경북지역 시민단체,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경주범시민운동본부' 출범

1979.4.12 경주 보문관광단지 시찰 2023.11 재현



경주 보문단지 가족상



박정희 사회

- 현실로서의 박정희사회(1961-1979, 또는 1인 영구집권체제하 동원사회)
- 기억과 추모공동체로서의 박정희사회(사후 신화화)
- 추종자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회적 존경체계가 지배하는 사회(patron-client)

- 민주화과정에서의 탈신비화와 역류로서의 신격화
- 박정희 신드롬(추억하기와 숭배론의 결합): 보수화 및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의 토대
- 박근혜정부의 실패로부터 오는 방향상실과 회의주의
- 재보수화 국면에서의 '우상화': 지방권력의 자기정당성 확보전략(보수 진보 양극화와 구조화에 토대를 둠)
- 홍준표시장의 발언: 반면거울로서의 광주?
- 경북과 대구의 주도권 경쟁: 경북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어려움
- 보편적 가치(민주주의, 인권, 평화)로부터의 소외와 역류

박정희 동상의 신격화

2016.11.14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생가터에 있는 '박정희 동상' 앞에서 '박정희 99 돌 탄신제'를 축하하며 동상 앞에 큰절을 하는 시민들(사진.평화뉴스)

2018.11.14



대구 경북의 경쟁적 박정희동상 건립추진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제2기 출범식 및 대표단 회의**

제1부 **출범식**(15:00~16:00) ● 진행사회: 김영숙(전 대구KBS아나운서)


국민의례
참석 인사 소개
개회사 박정환(대구경북미래연구원 이사장)
축사 변태석(아시아포럼21 이사장)
김소연(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공동대표)
경과보고 김형기(추진단장)
대표단 선출 - 공동위원장
- 지역본부장
- 고문 추대 및 자문위원 위촉
선임장/추대장/임명장/위촉장 수여
신임 대표단 인사

제2부 **대표단 회의**(16:00~17:00)

의결사항 - 추진계획
- 모금방법
- 홍보계획
- 박동추 예산
- 동상건립 마스터플랜
- 지역본부 조직모델

2024. 6. 19(수) 오후 3시
경상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

사단법인 대구경북미래연구원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 추진위원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부적길 28 (2층)
전화 : 053-742-8501
홈페이지 : www.dgjf.kr



박정희우상화사업 반대범시민운동본부

- 대구지역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1200명 시민선언을 발표
- 9월까지 2만 명을 목표로 기념조례 폐지 청구 범시민운동을 시작.
- 6월 26일 조례폐지청구서를 대구시의회에 제출. 7.20일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
- 조례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6개월간 1만 3690명의 서명 필요. 동상 건립을 신속하게 막아내기 위해 8월 말까지 1만5000명을 목표로 서명 추진. 9월까지 2만 명 목표로 서명운동.
- 7.20 대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시민대회를 개최
- 8.17 '박정희 우상화 반대, 홍준표 시장 규탄' 4차 시민대회계획
- 대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전국적인 연대 추진.
- 국회 범야권 반대 성명, 국회 토론회를 추진
- 독재자 기념사업 금지 법제화 검토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통한 박정희 우상화 반대 공동성명 추진.

박정희동상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



대구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를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김규현 기자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와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이 9일 경북 칠곡군 현대공원 4·9인혁열사 묘역 앞에서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김규현 기자

'우상화 동상' 반대운동



이행기 정의와 퇴행기 부정의

	진실	책임	명예	보상	기념 정신계승	대구관련사건들	1960-70년대 사건들
이행기	진실	처벌 응보적 정의	희생자 명예회복 가해자 명예박탈	회복적 정의 법/판결에 의한 보상	민주주의 인권 평화	10월항쟁 한국전쟁:보도연 맹과 대구형무소 예방학살 1960전쟁유족회 인혁당	민족일보 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 최종길사건 장준하사건 간첩조작 강제징집 해외입양 베트남전쟁
퇴행기	Post-truth 편향 왜곡 부인	불처벌 impunity	가해자 명 예 중시	보상중지 (회수)	기념대상 의 전도		

홍준표시장 대구 3정신론과 비판적 대안

- 2024.3.1 광주 김대중동상에 빛낸 대구 박정희 동상론 제기
- 7.22 대구 3대 정신론 제기
- 국채보상운동으로 출발한 구국운동정신
- 1960년 자유당 독재에 최초로 항거한 2.28자유정신
- 1960년대 초 근대화 시발점이 됐던 섬 유공협이 일어난 박정희산업화 정신
- 대구 정신론 + 박정희 정신론
- 집권 220여 개월: 103개월의 위수령, 긴급 조치, 계엄과 헌정 중단
- 도시정체성 논쟁의 계기?
- *광주 도시정체성 논쟁과 결과
- (민주성지론과 예방론)
- 10월항쟁
- 여순사건
- 5.16 쿠데타(황태성사건)
- 유신쿠데타
- 인혁당 재건위 사건(여정남)
- 부마항쟁과 10.26사건(김재규문제)
- 박근혜 실패의 근본적 원인론
- 윤석열 실패?

대구의 고뇌

- 한국정치의 지역적 양극화와 구조 조화: 전국정치와 지방정치의 괴리
- 민주화국면: 전국적 다수, 지역적 소수(집단적 압력: 배신자론)
- *2003년 노무현 정부하의 대사연의 역할
- 보수화국면: 전국적 소수, 지역적 소수
- *대구의 비판적 양심의 내적 이방인화
- 보편적 가치로부터의 이탈, 소외, 역류
- 자기긍정성(자긍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도시적 역사적 전통에서 보편적 가치를 구하기
- 도시정체성 논쟁의 활성화
- 진보적 가치(인권, 평화, 생태)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활성화
- 국제적 연대 전략

맺음말: 달빛동맹의 미래



- 위기 감수성
- 대구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
- 누가 말해야 하는가?
- 새대열, 2018, 『대구,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다』, 살림터.
- **보편적 가치연대**로부터 희망찾기
- 청년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미래의 주인 육성

참고문헌

- 정호기, 2007, 박정희시대의 '동상건립운동'과 애국주의 :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335 - 363.
- 이하연-김영호, 2018, 이승만 집권기와 박정희 집권기의 동상 비교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9 no.5 601-613.
- 정근식, 2015, 「냉전과 소련군기념비: 중국과 북한에서의 형성, 분화, 영향」, 『아시아리뷰』5-1,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95-230.
- 정근식, 2018, 발트에서의 탈사회주의 문화정치: '해방'에서 '점령'으로, 정근식 외 7인 공저, 『발트 3국의 탈사회주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연구원. 333-385.
- 정근식, 1995, "집단적 역사경험과 그 재생의 지평,"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47, 문학과 지성사.
- 정근식, 1998, "민족국가형성과 국가상징 : 우즈베크에서의 역사의 복원 또는 재창조," 『국제지역연구』 7-4, 서울대 국제지역원, 71-89.